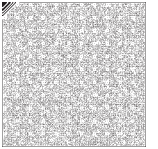


정석 예로니모 |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 아주 특별한 휴가

8월 초 아주 특별한 휴가를 보냈습니다. 전반부 3박 4일은 가족여행을 했고, 후반부 2박 3일은 수도원에서 개인 피정을 했습니다. 아내 헬레나와 휴가 계획을 짜다가 큰아들에게 여행 대장을 맡겨보았습니다. 큰아들은 가족회의를 열어 의견을 모은 뒤 경주, 경산, 대구를 다녀오는 멋진 여행 계획을 기획하고 실행했습니다. 스물아홉이니 그럴 만한 나이입니다. 맡기길 잘했습니다.

한결, 도운, 새운, 채운 네 아이와 엄마 아빠까지 여섯 명 한 가족이 토요일 오전 서울을 출발했습니다. 경주로 가는 차 안에서는 수학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요즘 수학이 궁금해진 아빠가 묻는 질문에 컴퓨터와 물리학을 전공한 아이들이 ‘수학은 과학의 언어’, ‘수학은 사람들의 소통을 돕는 도구’라며 조리 있게 답을 했습니다. 아빠와 아이들의 대화를 지켜보며 헬레나는 ‘아이들이 참 잘 컸구나’ 싶어 눈물이 핑 돌았다고 합니다. 유적들과 맛집 탐방도 하고, 경주역 앞 성동성당에서 주일 저녁 미사도 드리고, 박물관과 전시관까지 알찬 경주 여행을 마친 뒤 헬레나의 고향인 대구와 경산의 선산까지 들렀다가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아이들에게 외가 선산은 첫 방문이었습니다. 땀벌 아래 땀 흘리며 산소까지 오르느라 고생했지만, 엄마 집안 어르신들의 삶과 역사를 접하며 많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여행 일정 짜기와 숙소 예약에 맛집 찾기까지 아이들이 도맡아 하니 참 편안했습니다. 부모가 꼭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은 이렇게 자식에게 믿고 맡긴 뒤 뒷전에 머물러도 됩니다. 랫잇비(Let it be)가 역시 정답입니다!

서울 오는 차 안에서 남은 휴가에 개인 피정을 하고 싶었더니 헬레나는 바로 검색한 뒤 예약을 해줬습니다. 그 덕에 인천 계양산 아래 가르멜 수도원에서 특별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성당에 홀로 앉아 기도드리고, 책도 읽고, 산

책도 하고, 가만히 누워 쉬기도 하면서 사흘을 보냈습니다.

요즘 저는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당신 음성을 들려주세요. 제게 바라시는 바를 말씀해 주세요.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피정을 하면서 다시 청했더니 주님께선 “성녀 데레사와 대화해보렴.” 하고 답해주십니다. 16세기 종교개혁 격동기에 가톨릭교회 개혁을 위해 맨발 가르멜 수도회를 비롯해 17개 수도회를 창립했던 성녀 데레사를 오래전 스페인 아벨라 여행 때 처음 만났는데, 가르멜 수도원에서 이렇게 다시 만난 게 우연이 아니었나 봅니다. 주님 말씀대로 그분을 더 공부하고 기도 속에 만나 깊은 대화를 나누고 싶어졌습니다. 마침 수도회가 출간한 좋은 책들이 눈에 띄어 구입해 읽고, 성녀에 관한 강의 영상들도 찾아 들었습니다.

피정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 데레사 성녀의 이 말씀이 마음을 울립니다. “기도는 하느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단 한순간도 눈길을 떼지 않고 나를 지켜보고 계신 그분을 만나고 싶다면 그저 하느님을 바라보면 됩니다.” 여행 준비는 아이들에게 맡기고, 대신 하느님께 한 걸음 다가갔던 아주 특별한 휴가였습니다.

를
나를 이끄는
성경구절

하느님과
사랑하는
내말은
사랑하는
마르코 13,31

유임봉 스테파노 | 성산동성당